



# 부활 제4주일(4월 21일)

## 나는 착한 목자다 (요한 10,11-18)



### 착한 목자

예수님께서서는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안고 마지막 양 무리와 함께 목장으로 들어가신다. 예수님께서서 서 계신 곳은 목장의 입구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오른손으로 지팡이를 짚 쥐어 양들을 굳게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그분의 맨발은 목자의 삶이 결코 순탄치 않음을 예견해 준다.

그림 윌리엄 다이스 | 1859년, 캔버스에 유채, 78.9x63.5cm, 맨체스터 시립미술관, 영국

###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130번 “예수 부활하셨네”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평화의 주님, 이 시간 저희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피주소서.  
- 희망의 주님, 저희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한 분이 요한 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그때에 예수님께서서 말씀하셨다. 11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12 삯꾼은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는 양들을 물어 가고 양 떼를 흩어 버린다. 13 그는 삯꾼이어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14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15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16 그러나 나에게서는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도 있다. 나는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알아 듣고 마침내 한 목자 아래 한 양 떼가 될 것이다. 17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여 나는 목숨을 다시 얻는다. 18 아무도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는



것이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권한도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권한도 있다. 이것이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명령이다.”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요한 10,14)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요한 10,15)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 진행자 |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한걸음 더 나아가기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누구에게나 운명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부부의 만남, 부모와 자식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입니다. 모두가 주님께서 맺어주신 인연들입니다. 어떻게 이 만남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복음 말씀에 열쇠가 있습니다. ‘착한 마음’입니다. 착한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착하면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할 말도 못 하고, 남에게 당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러나 착한 마음 뒤에는 주님께서 계십니다. 그분께서 작심하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착한 마음은 참을 줄 아는 마음입니다. 하느님 때문에 알면서도 모르는 듯 덮어주는 마음입니다. 성질대로 하는 것이 늘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대로 한다고 늘 옳은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어린이의 모습일 뿐입니다. 우리 곁에는 몸은 어른이지만 생각과 행동은 여전히 어린이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만남은 꽃입니다. 꽃이 건강하려면 뿌리가 튼튼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는 이렇듯 상대를 참아주고 그를 좋게 생각하며 선한 마음을 가지는 일입니다. 만남의 연출자는 주님입니다. 그분께서 지금의 만남을 주선하셨다면 앞으로의 만남에도 개입하실 것은 분명합니다. 미래를 그분께 맡기며 살아야 합니다.

### 생명의 말씀 정하기

| 진행자 | : 한 달 동안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 말씀 살기

| 진행자 |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 봅시다. (나눔 후)

| 진행자 |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 마침기도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 마침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130번 “예수 부활하셨네”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